

<p>6.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p> <p>1) 연구 자료의 진실성</p> <p>질적 연구 방법에서 신뢰도와 내용 타당성의 기준은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으로 설명 된다.</p> <p>따라서 연구 자료의 진실성 계고를 위해 신뢰도 및 내용 타당성 기준이 필수적이다.(김영천,1997) 신뢰도와 내적타당도 확보 노력은 Guba와 Lincoln(1985)이 제시한 타당도기준(Trust Worthiness Criteria)의 내용들에 의하여 신뢰도와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중에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주관성을 최소화 하고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의 검토, 5년 이상 동종 동료 종사자들과 질적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박사급 전문가, 삼각검증 등을 실시하였다.</p> <p>(1) 연구 참여자 검토</p> <p>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s)란 수집된 자료의 분류와 해석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연구 참여자에게 재 검토과정을 의미한다(Guba,1981). 이는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p> <p>연구 참여자를 가급적 전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p>	<p>2) 연구의 윤리성</p> <p>Partridge(1979)은 과학의 목적, 절차, 작업의 결과는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인간적 잠재력을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이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접촉이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김영천, 1996, 1998, 2013).</p> <p>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연구자의 윤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p> <p>첫째, 먼저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 참여자로 정하였다. 심층면담 일정도 연구 참여자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였고 공식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불편해하지 않는 안정된 장소인 실내수영장 내 학부도 컴퓨터 공간에서 이루어졌다.</p> <p>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일체의 신분과 개인적인 정보 및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알파벳 부호를 사용하였다.</p> <p>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며, 연구 목적 이외의 일절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렸다.</p> <p>넷째, 연구결과와 자료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증 과정을 거쳤고, 연구 표현의 윤리적 측면에서 잠재적인 편견과 주관적 사고를 배제를 위한 연구자의 방법론적인 반성적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다.</p>
---	--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 ◆ **직접인용: 원문을 있는 그대로 가져 오는 것**
- ◆ **간접인용: 원문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반영하는 것**
- ◆ **재인용: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부득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재인용해야 할 때는
재인용이라고 표시해야 함**

직접인용의 올바른 사례

◆ 바른 사례

아이의 눈을 뜨게 하려는 회명의 헌신적 노력은 단지 아이의 두 눈이 떠지는, 그런 물리적인 개안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현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잃었지만 지혜의 눈, 깨달음의 눈을 얻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 것이다. 회명이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을 원한 것은 불성의 눈을 뜨기 위함이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그것은 '제3의 눈', 즉 '지혜의 눈'이다. 우리의 물리적 두 눈이 보는 것은 환상이거나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즉 존재의 실상(實相)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요구한다."⁵⁾ 이렇게 볼 때 아이의 갑작스런 실명은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한 미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388쪽.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직접인용문이 긴 경우(대략 4-5행)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듭니다. 이때에는 인용부호(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출처만 밝히면 됨

<예시>

문학에 있어서 문채의 중요성은 "문학은 도를 담은 그릇(文以載道)"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동양에서도 결코 간과되지 않았다. 의미에 부합되지 않은 화려하기만 한 문채는 지양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지만 즐거움과 감동이라는 문학의 두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문채는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근거의 하나로 중시되었다.

성현의 저작들을 모두 문장(文章)이라고 부르니, 이는 그것들이 모두 문채(文采)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물은 속성이 흐르고 움직이는 것이어서 언제나 물결을 일으키며, 나무는 몸체가 충실하면 거기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는, 형식이란 내용에 따르는 것임을 보여준다.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에 무늬가 없다면 그것은 개나 고양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코뿔소의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려면 거기에 붉은색을 칠해야만 한다. 이는, 내용이란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

1) 유현, 『문심조룡』, 최동호 역편, 민음사, 1994, 378쪽.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간접인용의 사례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음. 하지만 인용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함)

◆ 바르지 않은 사례

어디까지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나? 과학이란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신학과 철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편성이 인정되는 형식논리학이나 수학은 넓은 의미의 과학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은 이상과학·형식과학·선험과학이라고 하며,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경험과학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경험과학만을 과학이라고 한다. 경험과학은 다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눈다.⁶⁾

6) 「과학의 정의」,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접속일: 2014. 09. 05).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문제점

간접인용은 출처를 표시하였지만 실제로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가 대단히 모호함. 마지막 문장이 간접 인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윗글의 첫 문장 이외에는 모두 [두산백과]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임

해결책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접인용 시에 인용 분량을 되도록 짧게 처리하거나, 인용 표시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용을 할 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필요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인용 표시구:

'누구는 ...라고 말한다. '누구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

◆ 원문

과학이란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反證)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신학·철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편성이 인정되는 형식논리학이나 수학은 넓은 의미의 과학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은 이상과학·형식과학·선형과학(先驗科學)이라고 하며,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경험과학(經驗科學)과는 대립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방법론상 이 경험과학을 과학이라고 한다. 경험과학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눈다. 한편, W. 빈델반트나 H. 리케르트는 자연과학은 설명적 과학(說明的科學)이고, 역사과학 또는 문화과학은 기술적 과학(記述的科學)이라 부르고 있으며, W. M. 분트는 체계적 과학과 현상론적 과학 또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공학이나 의학 같은 응용과학도 과학에 속한다.

◆ 바른 사례

어디까지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나? 『두산백과』에 따르면 과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과학이란 아직까지 반증되지 않은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는 신학, 인문학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과학, 즉 경험과학은 다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뉜다.⁶⁾

6) 「과학의 정의」,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접속일: 2014. 09. 05).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재인용의 방법:

(일반적으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부득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재인용할 때는 재인용이라고 표시해야 함)

〈예시〉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에 의해 아이폰이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문학이라기보다 지식융합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지식융합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융합을 잘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레오 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 보자. 그는 인문학, 예술, 건축학, 기술, 과학, 수학, 의학 등을 두루 섭렵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 클라크는 한 마디로 "역사상 가장 지독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²⁾이라고 말하였다. 즉 지식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Kenneth Clark, Leonardo da Vinci, Penguin, 1987, p. 4. 프리초프 카프라, 「다빈치처럼 과학하라」, 김영사, 2011, 50쪽에서 재인용.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말바꿔쓰기를 위한 제언

- 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
-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 필자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말바꿔쓰기의 기본 원칙

- 원문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원저자는)---주장한다, 설명한다' 등으로 나타낸다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중복 게재 issue

"전문 연구자가 학술지에 이미 한 번
출판한 내용을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표기
없이, 마치 새것인 것처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비정상적인 출판행태가
중복게재가 되는 거야."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만화로 읽는 연구윤리 II] 06. 중복게재.
<http://www.cre.or.kr/board/?board=webtoon&no=1386600>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연구 성과의 발표유형

학
위
논
문

학사 학위 논문,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 석, 박사 학위 논문은 학술 정보로서 대학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보존한다.



학
회
발
표

학회 발표를 위한 논문. 대부분 본격적인 학술지 논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의 중간단계로서 동료들에게 검증을 받기 위한 사전 발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학회 논문은 될 수 있으면 인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인용은 상가해주세요.



학
술
지
논
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학계에 알리는 논문. 박사학위를 위해서는 학위 논문 이외에 일정 편수 이상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대학도 있다.

출판 아니면 퇴출 (Publish or Perish)!!



"예전에 한 정치인이 석사 학위 논문을 관련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중복게재'라고 엄청 이슈화 됐잖아."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학술지에 재출판?

*발해: 연하위키미러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학위논문은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전문가 심사(peer review)를 거치지 않은 논문입니다.

학
위
논
문



따라서 학위 논문의 연구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가 심사(peer review)를 거쳐, 서지사항을 갖추어 게재되면 비로소 공개되는 발간물이 됩니다.



이런 학위 논문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주 묻습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해도 됩니까?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는 학계에 소개할 가치를 가지는 우수한 학위논문을 학술지로 재출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65

"전문 연구자가 학술지에 이미 한 번 출판한 내용을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표기 없이, 마치 새것인 것처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비정상적인 출판행태가 중복게재가 되는 거야."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응. 학위논문 같은 경우 독자군이 제한적인 학생의 논문을 전문학계에 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나 학계, 또는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비영리로 출판한 문헌들을 말하는데, 석박사 학위 논문, 정부 보고서, 연구 보고서,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한 글, 인터넷에 올린 글 같은 것들이야."

"연구자로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의 수행시기나 사전 출판 정보 등을 밝혀서 제공해야해"

H A N Y A N G U N I V E R S I T Y

한국무용과학회지 투고 안내

1. 한국무용과학회지 논문투고

- ▶ 논문투고 및 학술지 발행일정

	1호	2호	3호	4호
투고 마감일	11월 31일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학술지 발행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 한국무용과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 논문투고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www.dancescience.or.kr 학회지논문투고에 가시면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한국무용과학회는 온라인 논문투고 (<http://ksds.jams.or.kr>)와 전자발간 (www.ksds-ejournal.or.kr)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 논문투고 심사비 입금계좌는 회비입금 계좌와 다르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투고논문 심사비회비: KEB 하나은행 540-0910384-54907 (홍애령)
 - 문의처: 총무이사 홍애령 (010-4288-1725)
조준희 (010-3832-6486)
간 사 이지혜 (010-7550-8094)
사 무 국 (02-760-5872)

2. 회원가입 안내

- ▶ 한국무용과학회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열린 학회”입니다. 무용에 대한 합리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www.dancescience.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비를 납부하신 후 학회사무국으로 반드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689-000425-01-031 (박재홍)
 - 연락처 : 사무국(02-760-5872), 간사(010-7550-8094)
-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비와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유형	연회비	비 고
정회원 (이사)	이사 20만원 부회장 30만원	대학에서 무용 또는 관련 과정을 수학(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하고 무용과학에 관심을 가진 분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가입
준회원 (일반, 학생)	3만원 (가입비 2만원)	무용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입가능하며, 최초 가입 시 연회비 이외 가입비 2만원을 별도 납부

- ▶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가입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학회 이메일로 보내시고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용과학회

제37회 추계학술대회

인 쇄 / 2017년 11월 16일

발 행 / 2017년 11월 18일

발행처 / 한국무용과학회

전화: 02) 760-5872

팩스: 02) 760-4485

www.dancescience.or.kr

ksds.jams.or.kr

www.ksds-ejournal.or.kr

제작처 / 레인보우박스

전화: 02) 2032-8800

팩스: 02) 871-0935
